



기후위험 공시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와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손민숙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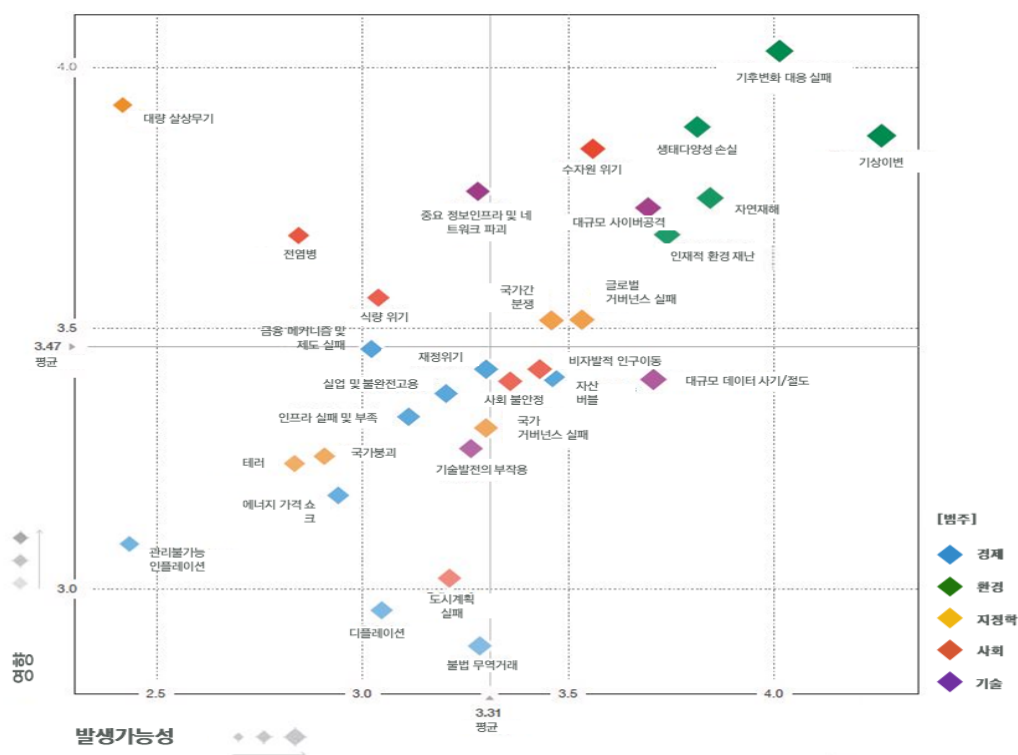
- **이상기온 및 자연재해의 빈발과 함께 기후위험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 2020년 1월 발간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의하면 발생가능성과 영향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위험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파리 협정은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여 감축하도록 하는 신기후체제이며 기후협약 최초로 국제법으로 효력을 가짐
-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전환이 본격화되며 금융회사 자산가치의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투자자를 위한 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
 - 2015년 G20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후 관련 금융공시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권고안을 제시함
 -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안은 기업경영의 핵심요소인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측정 및 목표를 주제로 각각에 대한 일반적 권고와 기후 관련 권고공시를 담고 있음
 - SIF/IAIS에서도 2017년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안 발표 후 권고안의 내용을 보험감독에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2019년 12월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회원국 의견을 수렴함
- **지속가능보험포럼의 설문에 의하면 보험회사의 기후위험 인식 수준은 높으나,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안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형 보험회사 위주로 15~20%의 보험사들만이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안에 따른 공시를 시행 중 또는 시행 계획임
 - 글로벌 보험회사인 AXA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며, 특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절하고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안에 따른 금융공시를 시행 중임
-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ESG 및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을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고 이를 시장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함**
 - 각국의 보험감독자들도 지속가능보험포럼(SIF)을 통하여 보험감독에 ESG와 기후변화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감독제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1. 논의배경

■ 2020년 1월 발간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¹⁾에 의하면 발생가능성(Likelihood)과 영향(Impact)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위험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발생가능성 측면에서 기상이변,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태다양성 손실, 인재적 환경재난 등 5개 환경 관련 항목이 사이버 관련 위험 요소들을 제치고 상위 5대 위험을 차지함(그림 1) 참조)
- 영향력 측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실패로 인한 위험이 가장 높고, 생태다양성 손실과 기상이변 등이 대량 살상무기에 이어 상위권 위험에 들며 자연재해와 인재적 환경재난도 10대 위험을 차지함

〈그림 1〉 글로벌 리스크 전망 2020



자료: WEF(2020), "The Global Risks Report 2019(14th Edition)", The Global Risks Landscape 2020

1) World Economic Forum(2020. 1. 15), "The Global Risks Report 2020(15th Edition)", The Global Risks Landscape 2020

■ 금융회사와 투자자에게도 기후변화는 심각한 재무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산업정책의 전환은 금융회사의 산업별 보유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이어지며 기존 투자에 대한 기후위험 관련 재평가가 필요함
 - 친환경발전 연구기관인 Ember의 최근 보고서²⁾에 의하면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은 전년 대비 3%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1990년 이래 최대 감소임
- 다른 한편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신재생 에너지효율 기반의 새로운 산업의 출현은 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음
 - IPCC 특별보고서³⁾는 지구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16~2035년 사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연평균 투자액이 24조 달러, 즉 세계 GDP의 2.5%가 필요하다고 전망함
 - Ember 보고서의 의하면 2019년 유럽 전력생산에서 풍력과 태양열 발전이 18%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15% 증가하여 전력생산의 8%를 차지하고 있음
-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 이에 대한 정책대응에 따른 전환적 위험, 대응과정에서 신기술의 도래 등은 광범위한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므로 자본의 장기적 효율성을 높이는 자산 배분이 필요함

■ 파리협정 체결을 계기로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정책적 전환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산가치 변동에도 영향을 주면서 투자자를 위한 공시의 중요성이 부각됨

- 2015년 12월 12일 세계 195개 참가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파리 협정은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여 감축하도록 하는 신기후체제임
 - 개발도상국까지 포함하여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2℃ 수준에서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⁴⁾
 - 기후변화 협약으로서 최초로 국제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는 파리협정은 2016년 11월 4일부터 효력이 발효⁵⁾됨
-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투자자는 낮은 투자수익률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

2) Ember(2020. 3), *2020 Global Electricity Review*

3) IPCC(2018. 10), "Global Warming of 1.5°C", *IPCC Special Report*

4) 지구온난화의 1.5℃ 이내 제한 필요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UN 보고서인 IPCC 특별보고서를 참조함; IPCC(2018. 10), "Global Warming of 1.5°C", *IPCC Special Report*

5) 파리협정은 55개 국가가 비준하고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이면 발효됨

2. 기후위험 금융공시 관련 국제기구 논의



- 이 장에서는 기후 관련 금융공시 작업반의 권고안의 내용과 함께 이를 금융감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로서 지속가능포럼과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공동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함
- 기후 관련 금융공시 작업반의 권고안은 발표 후 국제기구와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시 언급되어 중요성이 높으며 향후 각국의 금융감독제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 보험감독자들의 국제기구인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보험포럼(SIF)은 공동으로 TCFD 권고안의 내용을 보험감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가. 기후 관련 금융공시 작업반(TCFD) 권고안⁶⁾

- 2015년 G20 재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후 관련 금융공시 작업반(TCFD)⁷⁾을 구성하여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융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은행, 보험, 자산운용, 연금, 대형 비금융회사, 회계 및 컨설팅 회사, 신용평가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여러 금융부문과 국가에 걸쳐서 적용 가능한 권고안을 제시함
- 기후 관련 금융공시 작업반(TCFD)은 지배구조, 기업전략, 위험관리, 측정 및 목표의 4가지 영역에서 기후변화 위험을 반영한 금융회사 공시체계에 대한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2017년 발간함
- 권고안은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인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측정 및 목표를 주제로 각각에 대한 일반적 권고(Recommendation)와 기후 관련 권고 금융공시(Recommended Disclosure)를 담고 있음(표 1) 참조
- 지배구조에 대한 일반적 권고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시함
- 경영전략에 대한 일반적 권고는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공시함
- 위험관리에 대한 일반적 권고는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 평가, 관리하는 방안을 공시함
- 측정과 목표에 대한 일반적 권고는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지표 및 목표를 공시함

6) TCFD(2017. 6),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Final Report*

7)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는 Michael Bloomberg가 이끄는 민간 금융전문가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작업반임

〈표 1〉 TCFD 권고안과 관련 보험핵심원칙

핵심 요소	일반적 권고	기후 관련 권고 금융공시	보험핵심원칙
지배 구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를 공시	a) 이사회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감시 관련 내용을 설명 b) 경영진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 관련 내용을 설명	ICP 7 (기업지배구조) 7.3 이사회 구조와 지배구조 7.10 선임경영진의 의무 ICP 20 공시
경영 전략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실제 및 잠재적 영향을 공시	a) 조직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인식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관련 내용을 설명 b)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계획에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영향 관련 내용을 설명 c) 2°C 및 이하 감축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탄력성 관련 내용을 설명	ICP 7 (기업지배구조) 7.2 기업 문화, 사업목표와 전략 ICP 20 (공시)
위험 관리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 평가, 관리하는 방안을 공시	a)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b)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절차 관련 내용을 설명 c) 기후 관련 위험의 인식 평가 관리 절차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와 통합되는 방식 관련 내용을 설명	ICP 8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8.1 위험 관리 및 내부 제어를 위한 시스템 8.4 위험관리 기능 ICP 16 (지급능력 관점 위험 관리) ICP 20 (공시)
측정 및 목표	중요성이 큰 정보인 경우,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지표 및 목표를 공시	a) 조직이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를 조직의 전략 및 위험관리 절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사용한 측정기준에 관한 공시 b) Scope 1, Scope 2, 그리고 적절한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 ⁸⁾ 과 관련 위험 공시 c) 조직의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관리를 위한 목표와 그 목표 대비 성과 관련 내용 설명	ICP 8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8.5 보험수리적 기능 ICP 9 (감독검토 및 보고) 9.1 (감독 권한) ICP 16 (지급능력 관점 기업 위험 관리) ICP 20 (공시)

자료: TCFD(2017. 6); SIF/IAIS(2019. 12)

■ 작업반은 기후 관련 금융공시를 대부분의 G20국가에서 상장기업에 의무화 되어 있는 연차 재무보고서에 포함시켜 각국의 공시 요건과 맞추어 실행할 것을 권고함

- 기후 관련 금융공시를 기존 의무공시에 포함시키는 것은 주요 기후위험 정보의 효율적 전달에 효과적이며,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공시 과정에 참여하고 기후 관련 금융공시를 폭넓게 사용하는데 도움
 -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투자자 등의 보다 효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시정보 생산 과정도 CFO와 감사위원회의 검토처럼 다른 공시정보 생산과 유사한 표준적 내부절차를 적용함

8) Scope 1은 모든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 Scope 2는 구입한 전기, 열, 증기의 소비에 따른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 Scope 3은 Scope 2 외 모든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임. 예를 들어 업무위탁한 회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이 있음

나. 지속가능보험포럼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의견수렴 보고서⁹⁾

■ 지속가능보험포럼(SIF)과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비한 보험감독 강화를 위해 노력해옴

- 보험은 위험관리에 특화된 산업이면서 장기투자자로서 기후위험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금융인프라로서 보험감독 또한 그 중요성이 높아짐
- 지속가능보험포럼(Sustainable Insurance Forum)은 기후변화 문제와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의 보험 규제 및 감독 관련 국제적 논의 필요성에 따라 정식으로 2016년 12월 출범함
 - 2018년 6월에 발간한 IAIS/SIF 공동 이슈페이퍼를 통해 기후변화가 보험부문에 미치는 리스크와 보험감독 관점의 영향과 시사점을 검토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함
- SIF/IAIS는 2017년 6월 TCFD의 권고안 발표 후부터 권고안의 내용을 보험감독에 접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2019년 12월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회원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IAIS는 보험감독의 국제적 기준제정기구로서 보험핵심원칙(ICP)을 통해 지배구조, 감독 검토 및 기업 위험 관리와 같은 TCFD 기후변화 관련 금융공시의 내용을 다룰 수 있음(표 1) 참조

- ICP는 원칙, 기준 및 지침으로 구성되며, 아직 기후위험이 ICP 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TCFD의 지배구조, 기업전략, 위험관리, 측정 및 목표 체계를 반영할 수 있음
 - ICP 7(지배구조), ICP 8(위험관리와 내부통제), ICP 9(감독 검토와 보고), ICP 16(지급능력 관점의 위험관리) 등에 TCFD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함
- 특히 ICP 20(공시)에서 보험계약자 및 시장참여자가 사업활동, 위험, 성과, 재무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적시에 관련 포괄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중요한 경우 기후위험을 포함함
 - 물리적 위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의 성격 또는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전환적 위험은 보험회사의 투자 관리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음
- TCFD 권고안은 자발적이지만, 감독자는 일반적인 포괄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고, 규제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공시에 기후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 내용을 확장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9) SIF/IAIS(2019. 12), "Issues Paper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3. 기후변화 관련 보험회사 공시 현황 및 사례



가. TCFD 권고안 이행 관련 SIF 설문조사

- 2019년 상반기, 지속가능보험포럼(SIF)에서 TCFD 권고안 이행에 관하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에 15개국 1,170개 보험회사가 참여함
 - SIF는 2017년 7월 TCFD 권고안을 승인하여 보험회사의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식별 평가 및 공시 방안으로 정하고 이후 금융 및 기업 전반에 걸쳐 기후위험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옴
- 설문에 응답한 보험회사의 73%는 기후변화가 향후 영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청구 증가(58%),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51%), 새로운 사업기회(43%), 시장의 복잡성 변화(42%)를 일반적으로 우려 또는 기대함
 -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은 손해보험회사가 기후위험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 생명보험회사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기후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으나, TCFD 권고사항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약 15~20%의 보험사들만이 TCFD 권고사항을 시행하거나,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설문조사 대상 보험회사들 중 76%는 기후변화 및 관련 정보를 일부 공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국가 별로 그리고 보험회사별로 그 내용은 차이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연간재무보고서, 지속가능 보고서 및 통합 비재무제표, 성명서 및 정책, 감독보고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여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 TCFD 권고안은 기후 관련 금융공시의 체계를 설정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정보 전달 채널을 지정함으로써 기후 관련 정보의 불일치를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2019년 6월 발표된 TCFD 권고안 이행에 관한 2차 현황 보고서에서도 147개 대상 보험회사 중 권고 금융공시에 부합하는 회사는 4대 핵심요소에 따라 12~39% 정도로 나타남
- TCFD 권고안에 대한 실행 관련 조치는 주로 대형 보험회사(총 보험료 7,200억 달러 이상, 전체 보험료의 60% 차지)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중소 보험회사들은 아직 적극적이지 않음

- TCFD 권고안의 실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서는 권고안에 대한 낮은 인식, 기존 공시의 적절성, TCFD 부적합 그리고 권고안 수용을 위한 회사자원의 제약 등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기되었음
 - TCFD 권고안은 1/3 이상의 보험회사에서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TCFD 권고안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주로 손해보험에 해당한다고 인식함

나. 프랑스 보험회사 AXA의 기후 관련 공시

- 프랑스의 대형 보험회사인 AXA는 파리협정의 취지에 따라 지구온난화 2°C 시나리오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며 특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산업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절함

- 석탄 및 오일 샌드 관련 산업에서 37억 유로를 회수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보험인수를 거절하며, 2020년까지 지속가능 녹색사업에 120억 유로의 투자도 약속함

- AXA는 프랑스의 기후변화 관련 법령인 프랑스 법률 제173조¹⁰⁾와 TCFD 기후 관련 금융공시 권고안에 부합하는 기후 관련 투자 및 보험 보고서¹¹⁾를 통해 기후 관련 금융공시를 실행함

- AXA의 기후 관련 투자 및 보험 보고서는 TCFD 금융공시 권고안에 맞추어 지배구조, 기업전략, 위험관리, 측정 및 목표의 4가지 핵심요소에 따라 작성됨

-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AXA는 책임투자를 투자 과정에 ESG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투자와 기업책임(CR)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AXA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여러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그룹의 책임투자(RI) 및 기업의 책임(CR) 기능과 관련한 전략을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기후변화 관련 장기전략을 수립함
 - 금융그룹 차원의 책임투자위원회(RIC¹²⁾)를 설치하여 ESG 및 기후변화 관련 책임투자 전략을 담당하며 이때 RI 전문가 센터, CR 네트워크, 그룹의 자산관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음
 - 보상 및 지배구조 위원회는 매년 기업책임(CR) 관련 전략을 검토하면서 ESG 및 기후변화 관련 전략에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해 AXA 이해관계자 자문단¹³⁾에서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함

10)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령인 프랑스법 제173조는 2015년 8월에 책임투자원칙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의결수령을 거쳐 같은 해 12월 공포함

11) AXA Group(2018. 4), "Climate-related Investment and Insurance Report"; AXA Group(2019. 6), "Climate Report"

12) Responsible Investment Committee

13) AXA Stakeholder Advisory Panel

- 그룹 보험인수위원회는 보험인수와 관련된 ESG 및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그룹리스크 관리 전담팀은 장기적인 ESG 관련 위험을 모니터링함

■ 기업전략 측면에서 AXA는 기후 관련 금융공시 내용으로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전략 및 책임투자를 위한 방법론 등과 함께 보험인수 관련 위험을 설명함

- AXA의 책임투자 전략은 ① KPI 및 정성적 연구 사용 ② 사회, 인권, 윤리, 환경적 문제가 있는 사업이나 기업 배제 ③ 녹색투자 촉진 ④ 영향투자 지향 ⑤ 적극적 투표 및 참여임
 - 대부분 자산에 KPI 및 정성적 연구를 사용하여 ESG 성과 점수를 투자과정 및 의사결정에 통합하고 사회적, 인권적, 윤리적 또는 환경적 문제가 있는 부문 또는 기업을 배제함¹⁴⁾
 - 채권, 인프라, 부동산 대출을 포함한 시장표준에 따른 독자적 기준에 근거하여 '녹색(Green)' 투자를 촉진하고 환경 또는 사회적 긍정적 효과가 있는 '영향 투자' 개발함¹⁵⁾
- AXA는 지속가능 투자를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MSCI ESG 통계를 활용한 투자 성과의 측정 방법, 시나리오 분석, VaR과 NatCat 모형 등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기후 위험 평가방법 등을 설명함
 - 전환적 위험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며, 정책전환이 불려 올 신기술 등에 따른 기회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미래지향적 기후 VaR 모형으로 평가함
 -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이 자산 포트폴리오에 주는 영향은 자연재해 발생과 같은 확률적 사건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피보험 노출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NatCat 모형을 사용함

■ AXA는 기후위험의 투자 과정 통합을 위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특정 산업을 배제하거나 '친환경'과 '영향력' 투자, 기관투자자로 경영참여, 공공 정책 활동, 학술 연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AXA는 특히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탈석탄을 시작한 최초의 글로벌 투자자로 석탄 관련 기업에 대한 보험 인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고, 2017년 12월에는 녹색투자 등 기후전략 확대¹⁶⁾를 선언함
- AXA는 그룹 및 AXA 투자관리자의 기관투자 참여팀을 통해 주주이자 채권 보유자로서 ESG와 기후변화 등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 자신이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함
- 국제기구 및 단체를 통한 환경관련 공공정책 활동을 지원¹⁷⁾하고, 2007년부터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관련 연구비중이 큰 AXA 연구기금을 통해 1억 8,000만 유로에 달하는 공적 학술 연구를 지원함

■ AXA의 기후 관련 측정지표와 목표에 대한 금융공시는 탄소 발자국 분석, 배출 예방활동 지표, 신재생에너지 구매,

14) 지뢰 등과 같은 무기, 탄광·석탄 기반 발전, 오일 샌드 및 관련 파이프라인, 팜(Palm) 오일, 식품 파생상품 및 담배 등임

15) 금융 및 의료, 기후 회복, 교육, 재생에너지 등을 주제로 한 펀드 등임

16) 2017년 12월 12일 프랑스 정부 주도로 개최된 ONE Planet Summit에서 발표함

17) UN PRI, UN PSI, TCFD 및 '프랑스법 제173조(에너지전환법)', EU의 지속 가능한 금융에 대한 고위 전문가 그룹, 연합과 활동 멤버십,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등임

사회적 책임투자 등급 평가, 기업의 지속 가능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

- AXA의 주식 및 채권 투자를 통한 탄소 발자국¹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9%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소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됨
- AXA는 2002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환경보고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AXA의 2012~2020년 목표는 정규직 직원(FTE)당 탄소 배출량을 25% 감소하는 것임
- AXA는 2017년 'RE100' 계획(재생에너지 100%)에 가입해, 2020년까지 70%,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원으로부터 100%의 전력을 구매할 것을 목표로 함
- AXA 그룹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성과는 사회적책임투자(SRI) 등급평가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평가하고 있으며 AXA는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음
- AXA는 100개 이상의 CR 요인을 분석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자체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됨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파리협정 이후 UN과 G20를 정점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FSB 등 금융권역 국제기구도 물론 각국 중앙은행과 감독당국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 각국의 보험감독자들도 지속가능보험포럼을 통하여 보험감독에 ESG와 기후변화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핵심원칙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파리협정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결과물이며,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각국의 정책적 전환도 활발해지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산운용과 보험인수 기능을 통하여 기후변화의 전환적 위험과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들 위험에 대한 인식, 평가 및 관리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이미 시행 여부가 아닌 속도의 문제가 되었으며, 앞으로 각국의 저탄소 정책전환의 속도에 따라 보험회사 포트폴리오 구성에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 보험회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에 보험인수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사업모형을 가지므로 향후 지구온난화의 진행과 이에 따른 물리적 위험의 양상은 보험영업에 많은 영향을 줄

18) 탄소발자국은 주식 및 기업 채권은 백만 달러 거래당 이산화탄소 1톤, 국채는 GDP 백만 달러당 1톤, 부동산은 제곱미터 면적당 1kg으로 계산함

- TCFD가 제시한 금융공시 권고안의 실행으로 보험회사는 경영과정 전반에 걸쳐 인식하고, 평가한 기후위험에 대한 공시를 통하여 투자자 등 시장참가자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기후위험이 기업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를 통하여 시장참가자와 공유하는 것은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하여 기후위험이 반영된 적절한 자산가격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ESG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를 투자 등 의사결정에 통합하고, 이를 공시를 통해 시장과 공유하는 추세는 저탄소 경제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보험회사도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ESG 및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을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고 이를 시장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함
 - 이미 시작된 각국의 정책대응 노력은 향후 국제기구의 논의를 거치면서 정교화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국제적 기준으로 정착되어 향후 국내 제도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 기후위험 등 신종위험을 보험회사 전략수립 등 주요 의사결정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보험시장에 맞추어 국제기준을 받아들이면 제도 도입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kiri](#)